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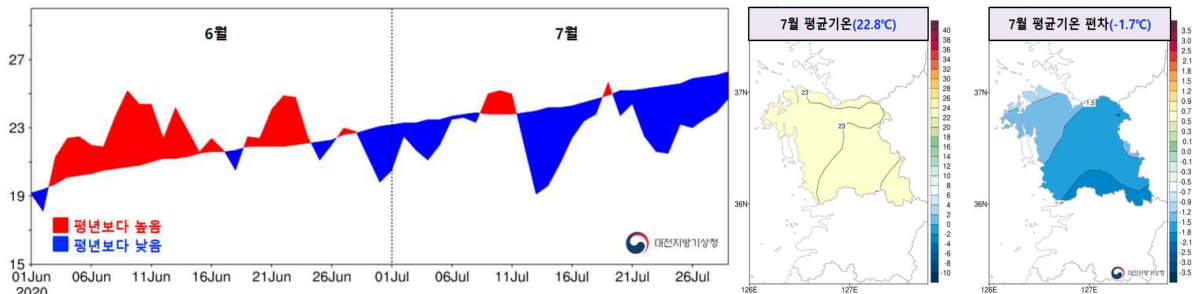
배포일시	2020. 7. 30.(목) 16:0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 장 김 충 렬 과 장 유 용 규
		전화번호	070-7850-4171 070-7850-4248

7월 기온과 강수 분석, 8~9월 기상전망

- 7월 기온이 선선하고 장마철이 길어진 원인
 - 우리나라 북쪽에 찬 공기가 정체하고 있고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 수축함에 따라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장기간 영향을 미침
- 8~9월 기상전망
 - 8월 이후 폭염은 평년(5.4일)과 비슷하거나 많겠음
 - 강수량은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
- 향후 장마철 전망
 - 대전·세종·충남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8월 10일 이후 장마철에서 벗어날 듯

□ 기온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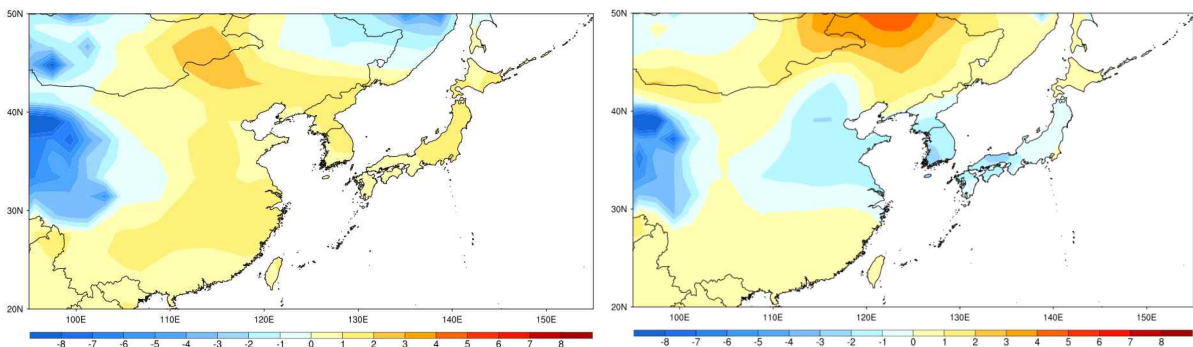
- 때 이른 폭염이 나타났던 6월과 달리 7월(1~29일)의 대전·세종·충남 평균 기온은 22.8℃(평년 -1.7℃)로 1973년 이후 하위 3위, 폭염 일수는 0.0일(평년 -2.7일)로 하위 1위, 열대야 일수는 0.0일(평년 -1.5일)로 하위 1위를 기록하면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
 - 이러한 경향은 중국 중부와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.



(왼쪽) 6월 1일~7월 29일 대전·세종·충남 평균기온 일변화 시계열, (오른쪽) 7월 1~29일 분포도

< 6월과 7월(1~29일) 기온 관련 기상요소별 순위(1973년 이후 대전·세종·충남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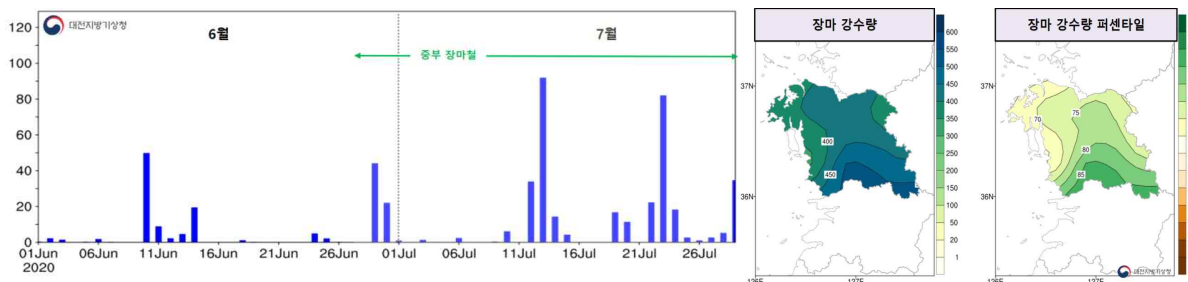
구분	6월		7월 1~29일	
	순위	값(°C/일)	순위	값(°C/일)
평균기온(평년비교)	상위 3위	22.4(+1.0)	하위 3위	22.8(-1.7)
평균 최고기온(평년비교)	상위 7위	27.7(+0.8)	하위 4위	26.8(-2.1)
평균 최저기온(평년비교)	상위 1위	18.1(+1.6)	하위 6위	19.7(-1.3)
폭염일수(평년비교)	상위 2위	1.6(+1.3)	하위 1위	0.0(-2.7)
열대야일수(평년비교)	상위 4위	0.0(0.0)	하위 1위	0.0(-1.5)



(왼쪽) 6월과 (오른쪽) 7월 1~29일 지상 기온 편차(채색)

□ 장마철(장마철 시작~7. 29.) 현황과 전망

- 현재(7.29.)까지 대전·세종·충남이 포함된 중부지방의 장마철은 6월 24일에 시작해 3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
※ 장마철 기간 가장 긴 해 : 2013년 중부 49일
- 장마철 기간에 대전·세종·충남의 강수량은 425.6mm로 평년(323.9mm)보다 많았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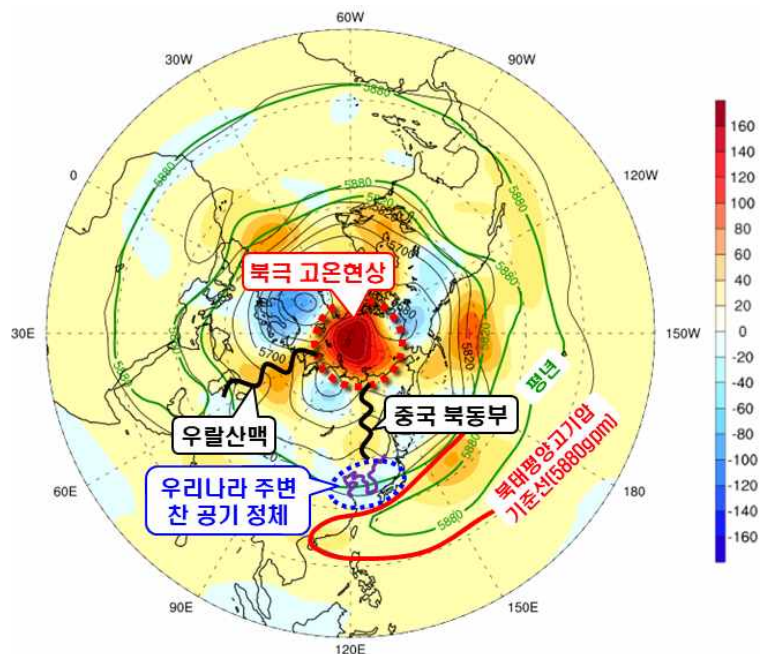


(왼쪽) 6월~7월(29일) 대전·세종·충남 강수량 일변화 시계열 (오른쪽) 장마(6.24~7.29) 강수량과 퍼센타일* 분포도

* 퍼센타일(백분위): 평년 동일 기간의 강수량을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값을 0, 가장 큰 값을 100으로 하는 수임(평년 비슷 범위: 33.33~66.67 퍼센타일)

□ 기온이 선선하고 장마철이 길어진 원인

- 북극 고온현상과 블로킹으로 우리나라 주변 찬 공기 정체하였습니다.
 - (북극 고온현상과 블로킹) 6월 말 동시베리아에서 발생한 블로킹¹⁾에서 분리된 고기압이 북서진하여 북극에 정체하면서 고온현상이 발생하여 중위도 기압계의 변동이 커졌습니다.
 - 우랄산맥과 중국 북동부에 고압대가 발달하여 동서 흐름이 느려지면서, 우리나라 주변으로 찬 공기가 위치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.
- (찬 공기 정체) 우리나라 주변에 찬 공기가 정체하여 따뜻하고 습한 공기인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고 일본 남쪽에 머무르면서, 정체전선이 주로 제주도 남쪽 해상~남해안에 위치하였습니다.
 - 이로 인해, 우리나라 주변에 찬 공기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, 장마철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 잦아 낮 동안 기온이 오르지 못했습니다.
 - 또한, 중국 남부까지 동서로 길게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,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자주 내려 중부와 남부의 지역 차이가 컸습니다.
 - 한편,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 확장이 지연되는 가운데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 정체전선이 자주 활성화되면서 장마철이 길게 이어졌습니다.



7월 1~29일 500hPa(약 5.5km 상공) 고도(실선)과 고도 편차(채색)

1) 블로킹 또는 저지고기압: 고위도에서 정체하거나 매우 느리게 이동(서진하는 경우도 많음)하는 키가 큰 온난고기압

□ 8~9월 기상전망

- (기온 전망) 평년(22.8℃)보다 0.5~1.0℃ 높겠고, 8~9월 폭염 일수는 평년('81.~ '10.) 5.4일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.
 - ※ (폭염 일수) 최고기온 33℃ 이상 : 평년 5.4일, '16년 17.2일, '18년 17.6일, '19년 8.8일
 - ※ (열대야 일수) 평년 1.8일, '16년 2.6일, '18년 8.4일, '19년 3.8일
- (8월) 장마철에서 벗어나 차차 기온이 상승하겠습니다. 구름 많은 날이 많아 평년과 비슷하거나 0.5℃ 정도 높겠습니다.
 - ※ 최고기온(8월) : 30.1℃(평년), 32.0℃(2016년), 32.7℃(2018년), 31.0℃(2019년)
- (9월)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다가 중순부터 중국내륙에서 다가오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겠으며, 낮 중심으로 더운 날이 많겠습니다(평년보다 0.5~1.5℃ 높고, 작년과 비슷).
 - ※ 최고기온(9월) : 26.2℃(평년), 32.1℃(2016년), 25.5℃(2018년), 26.4℃(2019년)
- (강수량 전망) 평년(364.5~520.6mm)과 비슷하거나 많은 경향을 보이겠으며,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.
 - ※ 강수량 평년 비슷 범위 : (8월) 202.9~289.5mm, (9월) 52.9~200.8mm

□ 향후 장마철 전망

- (대전·세종·충남을 포함한 중부지방) 정체전선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8월 1~3일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고, 정체전선이 북한지방으로 북상하는 4~5일 전반에 비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. 이후 정체전선이 다시 남하하는 5일 후반부터 비가 다시 시작되겠고, 중부지방은 8월 10일 이후 장마철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(변동성) 다만,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우리나라 북쪽의 건조공기 강도에 따라 중부지방의 장마철 종료 시기가 매우 유동적이니, 향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